

TV 사극 변천에 따른 드라마 의상의 변화와 가치분석 -MBC 사극을 중심으로-

이금희[†] · 남궁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Changes of Drama Costume and an Analysis of Costume's Value in the Changes of TV Historical Dramas -Focusing on MBC Historical Dramas-

Keum Hee Lee[†] · Yoon Sun Nam Keung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08년 4월 25일), 수정일(2008년 9월 9일), 게재확정일(2008년 10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evelopment and value of dresses shown in MBC historical dramas have changed with the overall change of the dramas.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second data analysis was done with literature study which was supplemented with interviews with the wardrobe team of MBC production design center. Historical dramas produced by MBC have gone through the developmental period, legitimate historical drama-oriented period, stagnant period, and historical dramas-modernized period. The value of costume in each period is as follows: Costume in the developmental period is considered only as part of drama setting. During legitimate historical drama-oriented period, it carries value as educational data and historical replica produced by historical research. Production design including costume obtains its own value in the stagnant period although the production of historical dramas decreases dramatically. And lastly, in the historical dramas-modernized period, costume starts to have commercial value as cultural contents. Historical drama costume may contain important value in terms of education and history, even though there has been controversy on TV historical dramas' role: they should focus on reproducing historical facts or they should support writers' creativity.

Key words: Historical drama, Drama costume, Value of costume, Cultural contents; 사극, 드라마 의상, 의상의 가치, 문화콘텐츠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TV 드라마는 1969년 MBC가 개국하여 KBS, TBC

와 3사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부터 방송사의 주력상품이 되어왔다.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시청률 현황분석결과, 조사대상 15개 장르(뉴스,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대담, 교육문화예술,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인포테인먼트, 영화, 코미디, 스포츠) 가운데 드라마의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호준, 2006).

TV 드라마는 시대변천과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드라마의 내용이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lee@swu.ac.kr

본 논문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TV 사극은 공영방송 드라마의 기능인 3E, 즉 오락기능(Entertainment), 교육기능(Education), 계도기능(Enlightenment)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시청률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드라마 장르가 되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TV 드라마 부문에서 사극의 인기는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사극은 과거의 특정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설화, 전설, 고전소설 등 역사적 허구물들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주창운, 2004). 이병훈(1997)은 사극의 시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상고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는 사극, 해방 전후에서 1950년대 말까지의 시대배경은 시대극, 1960년대 이후의 시대배경은 현대극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현재시점이 아닌 미래시점에서의 사극을 규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제시하면서 주혜정(2002)은 현재를 기준으로 두 세대 이전, 즉 40~60년 정도 이상이 지난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사극, 10~30년 전의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시대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극에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의상을 통해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으로 분별된다. 즉, 사극의 영상표현에 있어서 의상은 시대적·공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극중 인물의 역할과 신분 등을 특징짓는 직접적인 도구가 되어줌으로써 극적 현실감과 극에의 몰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에서의 의상을 기준으로 한복착용이 추가 되는 조선말까지를 시대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사극, 한복과 양장의 혼용 또는 양장과 양복으로 대변되는 현대화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인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의 드라마를 시대극, 1960년대 이후의 드라마를 현대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사극은 상고시대 이래 조선말까지를 시대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일컫으며, 사극 의상은 그러한 시대배경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복 또는 전통적 요소가 표현된 의상을 가리킨다.

TV 사극 의상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사극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고증의상 디자인을 다룬 최해울(2007), TV 사극 의상의 고증에 관한 봉현숙(2000)의 연구, 사극 의상 제작과정에 관한 조효순, 원혜은(2004)의 연구, 드라마나 영화의 영상물 의상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극 의상의 특징 및 의상제작에 관한 개별적인 분석이며, 전체적인 사극 의상의 시대적 변천이나 특징 또는 사극 의상이 갖는 가치나 의미에 관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극 의상의 질적 변화 및 개별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에 앞서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TV 사극 제작환경 및 의상이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고, 그 속에서 의상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극 의상의 가치변천을 살펴볼 때에는 사극 의상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환경, 제작기술의 발전 등 제작환경의 변천 및 당대의 대표적 사극과 사극 의상의 전반적 특징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공중과 방송사 가운데 드라마의 편성비중이 가장 높으면서(이호준, 2006), 드라마 왕국으로서 1969년 개국 당시부터 현재까지 드라마에 주력해온 MBC에서 방영된 사극을 중심으로 방송 40여년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TV 사극 변천에 따른 사극 의상의 변천과 그 속에서 의상이 갖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 연구와 정보제공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론 연구는 사극 관련 서적, 연구논문, 방송전문 저널, 연구조사 보고서 등과 MBC 사극 관련 자료로서 TV 드라마 편람, 문화방송 연지, 문화방송 연감, MBC 미술센터 소식지 등을 포함한 2차 텍스트 분석을 하였다. 심층면접은 MBC 첫 공채 의상담당 디자이너인 미술센터 경영사업국의 P 국장, 의상팀의 K 부장, L 차장과 2008년 1월에서 6월까지 총 10회, 각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접자료를 통해 텍스트 분석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및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P 국장을 통한 성원체크를 하였다. 이러한 성원체크방법을 통해 질적 연구방법이 지니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오류를 줄이고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에 관련한 정보제공자 및 심층면접 과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II. TV 사극의 변천

TV 사극의 변천은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함께 미디어 환경, 제작기술의 발전 등 방송환경의 내·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특징지어진다. 이병훈

<표 1> 정보제공자 및 심층면접 과정

| 정보제공자 | 면접일시 | 면접장소 | 주요 면접내용 |
|---------------------|------|-------------|------------------|
| MBC 미술센터 드라마 의상 제작팀 | P 국장 | 2008. 1. 24 | MBC 여의도 사옥 |
| | | 2008. 4. 24 | 서울여대 APEX 갤러리 |
| | | 2008. 5. 9 | MBC 드림센터 |
| | K 부장 | 2008. 3. 17 | 서울여대 대학원 세미나 |
| | | 2008. 4. 12 | 인사 아트 센터 |
| | L 차장 | 2008. 1. 16 | MBC '카페 드라마' |
| | | 2008. 1. 20 | MBC 사극 '이산' 제작현장 |
| | | 2008. 5. 21 | 서울여대 대학원 세미나 |
| | | 2008. 6. 14 | MBC 드림센터 |
| | | 2008. 6. 28 | MBC 드림센터 |

<표 2> MBC 사극의 변천 및 시기별 특성

| 시 기 명 | 기 간 | TV 사극과 방송환경의 변화내용 |
|----------|---------------|--|
| 사극의 발전기 | 1969년 ~ 1980년 | MBC 개국, 일일연속사극의 인기, 위로부터의 방송통제정책 |
| 정사극 편중기 | 1981년 ~ 1990년 | 컬러방송시작, 언론통폐합에 따른 MBC의 공영방송체제 운영, 官撰史料에 근거한 정사극의 편중 |
| 사극의 정체기 | 1991년 ~ 1999년 | 국내외 민주화 관련 현재시점 소재의 범람으로 인한 사극의 침체 |
| 사극의 현대화기 | 2000년 ~ 현재 | 시대배경 · 인물의 다양화, 역사인식제작환경의 변화 및 발달에 의한 현대적 사극의 등장과 인기 |

(1997)은 제작환경의 특성에 따라 첫 TV 사극이 탄생한 1964년부터 1997년까지를 6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즉 TV 사극의 초창기, 방송 3사의 TV 사극 경쟁의 발전기, 국난극복 사극 제작의 전환기, 컬러 방송의 정사(正史)드라마 전성기, 사극 퇴조의 침체기, 사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부흥기이다. 강호진(2004)은 4시기로 구분하여 TBC 시대극 <아씨>로 대표되는 일일연속사극의 편성시기, KBS <개국>, MBC <조선왕조 500년>으로 대표되는 1980년 컬러 방송과 함께 시작된 정사극 전성시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의 사극의 침체시기, KBS <용의눈물>, <태조왕건>, SBS <여인천하>, MBC <허준>, <조선여형사 다모>, <대장금> 등 현대적 사극의 등장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극의 변천과정에 대한 시기적 구분은 연구자마다 4~6시기로 다르게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MBC 제작 사극에 영향을 미친 환경의 변화요인과 특징을 (주)문화방송에서 발간하는 문화방송 연지, 문화방송 연감 및 문화방송 30년사의 내용 등을 토대로 <표 2>에서와 같이 크게 사극의 발전기, 정사극 편중시기, 사극의 정체기, 사극의 현대화기의 4시기로 구분하였다.

1. 사극의 발전기: 1969년 ~ 1980년

1969년 MBC TV가 개국함으로써 HLKZ TV, KBS TV, YBC TV에 이어 4번째 TV국, 민간 상업방송으로는 두 번째의 TV국이 되면서 민간 TV시대를 본격화했다(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 1992). 이로 인해 각 방송사는 드라마를 주력상품으로 내세우면서 시청률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8월, MBC에서의 첫 사극인 토요연속극 <회심곡>(김희창 극본, 유길촌 연출)이 방송되었고, 1971년 <장희빈>(이서구 극본, 유홍렬 연출)<그림 1>은 그해 일일연속극 부문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MBC가 드라마 부문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극의 인기를 본격화시켰다(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 1992). 1972년, 조선말기를 배경으로한 궁중사극인 <대원군>(유주현 원작, 이은성 극본, 표재순 연출)<그림 2>는 지식층의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일일연속사극의 인기를 지속시켰다. 그러나 1977년 6월 24일, 방송윤리위원회의 방송드라마 윤리기준 제정,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에서 공영방송체제의 확립을 위한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면서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방송통제정책으로 1975년, 상민



<그림 1> 장희빈



<그림 2> 대원군



<그림 3> 태국

의 좌절을 다룬 <양반>(곽일로 극본, 유흥렬 연출), 1976년 <예성강>(이은성 극본, 표재순 연출), <사미인곡>(이상현 극본, 표재순 연출), <거상 임상옥>(이은성 극본, 유흥렬 연출) 등 오락성을 배제한 채 계도성에 중점을 둔 '국난극복 사극'이라 일컬어지는 사극이 일시적으로 제작되었다. 1977년 <태국>(신봉승 극본, 표재순 연출) <그림 3>은 일본 가고시마의 현지로케로 방송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왕조의 도공 심수관의 내역을 극화한 드라마로 첫 해외 현지제작 드라마였다(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 1992). 이후 1978년부터 드라마 본래의 오락성이 가미된 사극이 제작되었다.

2. 정사극 편중기: 1981년 ~ 1990년

1980년 11월 17일, 방송의 공영성과 근대화 및 언론부조리 제거를 위한 '언론통폐합'의 단행으로 TBC TV가 KBS에 합병되어 KBS1, KBS2, MBC의 2개 방송사, 3채널이 시작되었고, MBC는 공영방송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사극 초기에는 주로 일일연속극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1981년도에 주 2회 주간드라마로 편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는 1981년 컬러방송의 시작과 MBC <조선왕조 500년>으로 대표되는 '정사(正史)드라마 전성시대'로서 正史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같은 官撰史料에 근거한 것을 말한다. 1983년에 조선왕조 518년을 시대별로 극화한 <조선왕조 500년>(신봉승 극본, 이병훈 연출)시리즈가 <추동궁 마마>를 시작으로 1990년 제11화 <대원군>으로 종료되기까지 7년 6개월에 걸쳐 방영됨으로써 규모가 크고 완성도 높은 대하사극의 큰 업적을 남겼다. 컬러방송과 그로 인해 시도된 탈 스튜디오 제작을 통한 영상의 웅장함은 극의 완성도를 높였고, 또한 正史를 드라마로 다룸으로써 공영드라마로서 사극이 갖춰야 할 교육적 기능과 계도적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3. 사극의 정체기: 1991년 ~ 1999년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국내의 민주화물결과 독일 통일, 동구권 국가들의 민주화 등 현재 시점에 관련된 자극적인 소재들이 TV 드라마로 자유로이 제작되면서 과거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의 관심은 줄어들었다(이병훈, 1997). 1991년 허준의 생애를 그린 <동의보감>(이상현 극본, 이재갑 연출)이 한의학의 신비함을 영상화시키는데 성공하였을 뿐, 1990년~1995년 시기동안 사극은 매년 1~2편 정도밖에 제작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사극의 정체기였다.

4. 사극의 현대화기: 2000년 ~ 현재

2000년 이후 사극은 새로운 사극의 부흥으로 정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2000년~2003년 동안 텔레비전 드라마 전체와 사극의 평균 시청률을 비교한 결과 사극이 평균 6%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주창윤, 2004), 2008년 현재 방송 3사 4채널에서는 동시에 사극이 방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시청률이 높게 나온 드라마를 중심으로 장르에 따른 시청자 분극화 현상에 대한 전현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사극이 분극화 현상이 가장 작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극의 시청자 층이 연령대와 성별에 있어서 다양하게 분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0년 이후에 사극의 시청자 층이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대중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김준호, 2006). 대중성 확보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극은 2000년 <허준>(최완규 극본, 이병훈 연출)으로서 시청률 55.9%를 기록하며, 현대적 어투의 도입, 성악가 조수미의 타이틀곡, 모던한 음악, 한 템포 빠른 장면전환 등을 통해 사극에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문화방송, 2001). 또한, 7~80년대부터 활동

해오던 5-6명의 전문작가에 의해 반복되던 전형적인 사극 패턴이 현대 트렌디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드는 신진작가에 의해 재창조되었다. <허준>의 작가는 <종합병원>, <울인>의 최완규, SBS <대망>은 <모래시계>, 영화 <러브스토리>의 송지나, 조선여형사 <다모>는 MBC 베스트극장 출신의 정형수, <대장금>은 <테마게임> 등의 여성 예능작가 출신 김영현 등이 그들이다(강호진, 2004). 이러한 점은 영상세대의 감각과 감성이 연출과 작가영역, 음악, 미술, 특수영역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내용 및 형식과 질적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되었다.

김준호(2006)는 2000년 이후 역사적 소재에 현재의 사회문화적 코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식의 사극을 '퓨전 사극'으로 정의하면서, 분석대상인 2003년 MBC 사극 <대장금>이 재현하고 있는 궁중의 음식문화는 '웰빙문화'라고 하는 대중의 문화적 감성을 깨우는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장금>외에도 <허준>의 의학, <상도>의 비즈니스, <다모>의 수사 등은 현재의 우리 생활과 밀접해있으면서 전문가인 서민영웅을 내세우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극의 소재, 주제, 형식을 선보이고 있다(문화방송, 2002).

2006년은 MBC 사극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몽>(최완규, 정형수 극본, 이주환, 김근홍 연출)의 해였다. 고조선의 멸망과 고구려 건국에 이르는 고대국가 시대를 처음으로 다루고 있고 이를 배경으로 영웅들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주몽>에 이어 2007년 430억의 제작비를 들인 판타지 사극 <태왕사신기>(송지나 극본, 김중학, 윤상호 연출)는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사랑과 인생역정과 함께 강서고분벽화의 사신도에 그려져 있는 사신을 등장시킨 드라마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사극의 내용과 구성형식, 제작방식에서 다양성과 트렌드성을 가미하여 시청자 층이 폭넓게 확대됨으로써 대중성을 기반으로 사극의 부흥을 이룬 사극의 현대화기로 볼 수 있다.

III. TV 사극 의상의 변천과 가치분석

1. TV 사극에서의 의상 이미지에 대한 인식

MBC 미술센터 상무를 역임한 박수명(문화방송 30년 사 편찬위원회, 1992)의 경험은 사극을 통해 형성된 시대와 의상의 이미지가 얼마나 강하게 인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5년 주간드라마 집념에서 처음으로 조선조 여인의 성장이 표현되었을 때 반가의 여인으로 전양자씨가 처음 큰머리를 하고 출연하였다. 방송이 나간 후 쪽머리에 익숙해져있던 시청자는 물론 제작국 간부들로부터 여러 비난성 말을 듣게 됐다. 정확한 고중에 의했는지는 몰라도 큰머리가 보기싫다스니 혹은 반가여인을 어떻게 상사람처럼(춘향의 어머니 월매처럼) 표현됐느냐 등의 질책이 그것이었다. 조선조 여인의 머리모양을 제대로 찾기까지는 나와 분장실 사원은 10여년의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TV를 통해 보여지는 사극의상의 이미지는 사극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일단 사극 의상과 시대가 연계되어 각인되면 그 연계성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TV 사극에서의 의상은 현대극과는 달리 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강하게 인식됨으로 인해 사극의상이 갖는 사회적 책임과 계도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사극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사극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사극 의상에 대한 인식에도 반영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사극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때, TV 사극에 대해 역사성을 지닌 내용으로서 역사교육과 역사 의식 전달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키는 측면파(김동욱, 1982; 이현중, 1982; 이현희, 1982), 작가의 창작물로서 역사의 사실적 묘사보다는 극의 인물묘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이 대립하였다(신봉승, 1984). 현재에도 사극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중에 충실한 정통사극과 시대의 트렌드성을 반영한 사극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사극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사극에서의 의상 이미지는 다르게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성과 교육을 강조할 경우에는 의상의 고증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창작과 허구성을 강조할 경우에는 극적 장치로서의 의상에 비중을 두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이 대립의 차원에서 사극의 역할을 수용하고 있지만 사극에서의 의상은 중요한 영상 이미지임을 공유하면서 의상 표현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동욱(1982)은 TV 사극에서 잘못 표현되고 있는 복식이 교육적 측면과 전통문화 전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신봉승(1984)은 영상으로 전달되는 사극에서 소도구나 의상의 미흡함은 극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에 더해서 극의 내용은 작가의 창작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대도구와 소도구, 의상은 역사에 바탕을 두고 학문적 고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극에서 의상이 역사 재현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 대한 주장은 MBC 미술센터 의상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사극 의상이 고중에 따른 정확한 디자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최근의 사극의 구성이 창작에 비중을 둘에 따라 사극 의상에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더라도 기본적인 것에는 충실하고자 하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의상의 형태 변화는 크게 시도하지 않되 색상과 원단의 변화로 다양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사극에서 역사 재현물로서 의상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창작물로서 변화를 꾀야 할 부분에서는 변화를 주도 기준은 확실히 두자는 원칙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TV 사극 제작환경에 따른 드라마 의상의 발전

1) 사극 의상 제작의 태동기(1969년 ~ 1980년)

1969년 개국과 함께 사극은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지만, 1970년에 제작여건의 미비로 철야 녹화하는 일이 많고 드라마를 생방송하는 일이 비일비재 할 만큼(문화방송경향신문 TV 제작국, 1979), TV 사극의 제작환경은 열악했다. 특히 사극 의상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영화계에서 영화의 상을 담당하던 영화감독의 부인인 장기옥씨가 MBC 의상실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영화, 미술업체로부터 사극 의상을 빌려와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한다(L 차장과 의 인터뷰). 이후 차츰 자체 제작하기 시작하여 70년대 초반 즈음에는 상당한 미술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이병훈, 1997). 고중에 의한 의상 제작은 1974년, 미술부 안에 고중 발굴 소위원회를 두어 고건축·의상·민속 공예품 등의 자료를 6개월에 걸쳐 수입하고 특히 조선조시대의 궁중과 사가에서 사용한 의상·장신구 등을 신분 계급별로 구분하여 재현하기 시작했다. 9월 2일에는 왕조의 부식과 건축을 주제로 제1회 미술고중 세미나를 열었고 75년 7월 29일에는 민족문화고중회와 공동주최로 제2회 세미나를 열어 고중의 필요성, 고전, 언어 제도 풍습, 고의상 등 4부분으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가지기도 했다(文化放送 三十年史 편찬위원회, 1992). 1969년 ~ 1996년까지 MBC에서 방영된 사극의 시대배경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가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훈, 1997). 이와 같은 조선시대 편중은 조선시대 의상과 미술품 자료를 좀 더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끊

임없이 재사용됨으로써 신규 드라마에서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사극 의상의 디자인 변화기(1981 ~ 1991년)

1981년 1월 1일 컬러방송의 시작으로 '그레이 스케일'로 제작되었던 흑백방송보다 미술부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세트, 대도구, 소도구, 의상, 분장 등이 컬러 톤에 맞추어 제작에 들어갔다. 특히 의상은 출연자의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더욱 중요해졌다. 흑백 TV 화면에서는 색의 3속성 가운데 명도가 1차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었기에 명도 위주로 전반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약간의 고중된 시대적 배경의 스타일만 고려하면 되었다. 그러나 컬러 TV 화면은 의상의 색상과 무늬, 소재, 디테일 등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였다. 삼원색과 그 인접색은 금지색이 되었고, 소재에 있어서는 반사광이 강한 소재는 얼굴 가까이에는 두지 않게끔 제작되었고, 디테일에 있어서도 통일감과 정확도가 요구되어졌다(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 1992). 흑백 TV와는 달리 컬러 TV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색감만으로도 시청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었지만, 시청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디자인이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1984년, MBC 방송국에서는 현재 MBC 미술센터 P 국장이 의상 담당자로 첫 공채되었는데, 이는 드라마에서 의상의 비중이 커지고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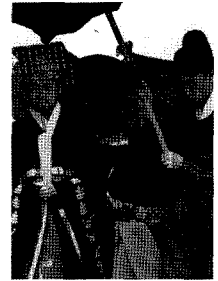
1983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된 <조선왕조 500년>(신봉승 극본, 이병훈 연출)시리즈 가운데, 미술제작팀은 1985년 <조선왕조 500년> 제5화 <임진왜란>의 리얼한 제작과 정확한 고증을 위해 일본을 다녀왔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품물·의상·분장 등에 대해 철저히 재현함으로써 TV 미술분야의 차원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문화방송, 1986). 또한 의상 디자인은 그 어느 때 보다는 화려해지게 되었다(그림 4-5). 1986년 9월 10일 ~ 10월 9일 동안 86문화 종합전시장에서는 '조선왕조 500년 복식전'을 개최하면서 조선시대 의상 50종, 장신구 170점, 생활용품 19점 등 총 239점을 전시하였다. 철저한 고증으로 제작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제작(문화방송 TV 제작국, 1992)하였다. 컬러방송과 8년 동안 시리즈로 제작된 정사극의 편중은 의상 제작에서 색상에서의 다양성과 디자인 면에서의 정확성과 화려함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 조선왕조 500년의
'입진왜란'



<그림 5> 조선왕조 500년의 '회천문'



<그림 6> 대왕의 길

3) 사극 의상의 독립적 발전기(1992년 ~ 1999년)

1991년 12월 9일, 민영 상업방송인 서울방송(SBS)이 개국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개막되었다. TV 경쟁체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장르는 드라마였고, 이로 인해 드라마 제작의 다양화와 대형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국내의 정치경제의 격동적인 환경이 자극적인 소재로 제공되면서 과거를 배경으로 한 사극의 정체기를 야기했다. 그러나 사극의 정체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방송에서 미술 분야가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MBC 미술센터가 1992년 7월 1일 문화방송의 5번째 관련회사로 창립되어 의상을 포함한 미술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 1992).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코자 미술센터 각 부서를 대표하는 팀장급 6명으로 'IMF 비상경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했다(문화방송, 1998). 1998년에는 그동안 현안으로 제기되어왔던 창고의 공간을 정비, 미술용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작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경영목표에 의한 예산관리를 강화하고, <대왕의 길>(임충 극본, 소원영 연출)<그림 6> 의상 협찬 등 공격적인 협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제작단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문화방송,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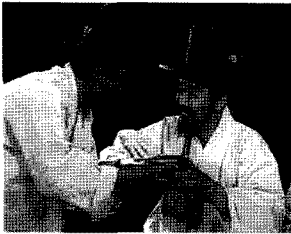
경제위기로 인해 제작비의 부담이 큰 사극은 기피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협찬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하고, 경제위기로 무너진 민족적 자존심과 개인적 좌절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심리적 위안의 역할을 대행사극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사극 제작편수는 감소되어 정체기로 명명되지만 사극 제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종전의 사극에 비해 비교적 표현이 우수하

고 고중에 충실한 작품인 <대왕의 길>이 제작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그동안 방송되었던 사극과 달리 왕이나 왕족들의 개인생활 습속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책봉례 등의 국가적 큰 행사, 평상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의상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봉현숙, 2000).

4) 사극 의상의 다면적 변화기(2000년~현재)

사극의 현대화로 대중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이 시기는 사극제작이 대규모 야외세트 또는 자연환경의 열린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허준>의 오픈세트에는 건축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세트 디자인의 비중이 커지면서 의상 부분도 크게 부각되어 의상이 한층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꾸며졌다. 그동안 사극 제작예산 관계로 의상의 소재 선정, 자수문양의 표현, 제작 별 수 등이 제한되었었는데, <허준>을 계기로 600여벌에 달하는 대대적인 의상 협찬으로 사극 의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L 차장과의 인터뷰).

또한 동일원작을 드라마화한 1991년의 <동의보감>(이상현 극본, 이재갑 연출)과 2000년의 <허준>의 의상을 비교해 보면 <동의보감>에서는 기존의 무채색 계통과 원색의 비비드 컬러가 사용되었고, 특히 평민의 의상에서는 백의민족의 표상인 흰색이 사용되었으나 <그림 7-8>, <허준>에서는 평민들 의상<그림 9>에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었던 파스텔 톤이 가미되고, 양반 의상에는 화학 섬유가 아닌 실크 소재로 제작되면서 원색의 컬러감이 좀 더 깨끗하고 밝게 표현되었다. 사극의 궁중복식은 고중 자료를 전제로 한 원색의 화려함에 감각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평민복에서 이와 같은 컬러감의 변화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종의 단령과 담호의 혼합 형태인 소매 없는 둥근 목선의 포 위에 입은 의원복<그림 9>



<그림 7> '동요보감'에서의 허준



<그림 8> 의녀



<그림 9> '허준'에서의 허준



<그림 10> 의녀



<그림 11> 대장금



<그림 12>
'다모'의 종사관 정복



<그림 13> 주몽



<그림 14> 태왕사신기

와 등근 깃과 배자 형태가 변형된 의녀복<그림 10>을 착용시키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의녀복 디자인이 탄생되었다. <허준>의 의녀복 디자인은 당시 의녀복에 대한 정확한 고증 자료가 없어 디자이너의 상상력으로 제작되어 반발이 우려되었으나 방송 이후 다른 방송사에서도 의녀복으로 착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장금>의 의녀복과 가리마 디자인<그림 11>으로 발전되어 <허준>을 통해 예시된 의녀복은 사극을 통해 창작된 의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L 차장과의 인터뷰).

또한 이러한 디자인은 현대적 감성으로 특히 등장 인물들의 새롭고 다양한 의상 스타일로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파고들었던(김준호, 2006) 2003년 <다모>의 종사관 정복<그림 12>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어깨의 견장, 모자의 장식, 앞길 부분의 장식 등은 고증과 완전히 대치되는 디자인으로, 소매 중앙의 두 줄의 선 처리는 오늘날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아디다스'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창작된 사극 의상이었다. 2006년 <주몽><그림 13>에 이은 2007년 <태왕사신기><그림 14>의 제작은 사극 의상 디자인에 새로운 해석과 창작의 여지를 갖게 해주었다. 사극의 주된 역사적 배경은 상대적으로 고증 자료가 풍부해 제작이 쉬운 조선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고대를 배경으로 '탈조선'을 시도하면서 높은 시청률과 대중성을 기록했던 사극의 의상은 고증 자료가 충

분하지 않아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의존한 의상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미와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3. TV 사극 의상의 가치 변천

1) 시대적 배경물로서의 가치(1969년 ~ 1980년)

사극 의상 제작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는 일일 연속사극이 인기를 끌면서 사극 발전의 길을 열게 되었지만 TV 사극 제작환경은 열악하였다. 초창기 TV 사극에 필요한 역사적 배경의 재현물들을 제작하는데 많은 제작비가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방송국에서 완전히 갖추고 출발할 것도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의상은 드라마의 시대적·공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Russell(1985)에 따르면 드라마 의상은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나, 계절, 때, 장소 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요소이다. 그런데 사극 제작 초창기에는 영화 미술업체로부터 의상, 가발, 장신구 등을 빌려와 사극을 제작하다가 차츰 시대적 고증이 가능한 조선시대 의상부터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들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 의상은 사극이라는 드라마 장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시대를 나타내는 역사재현의 배경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급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1970년대는 사극 의상 제작의 태동기로 사극의 상은 사극의 시대적·공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기초적 역할을 나타내는 역사 재현의 도구였기에 사극의 시대적 배경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적 기능의 역사적 재현물로서의 가치(1981년 ~1991년)

1980년대 사극은 주 2회 주간드라마로 편성되어 정사드라마를 다음으로써 사극이 가져야 할 교육적 계도적 기능에 충실하게 되었다. 즉 TV의 교육적 기능을 부각시키면서 가장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잉태할 수 있는 더 없이 훌륭한 매개체인 고중 작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981년 컬러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철저한 고중에 의한 역사적 재현물로서의 의상 제작에 주력하였다. 이는 흑백 TV 시절의 명도 차이에 의한 사극 의상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치밀함과 정확함이 요구되어졌기 때문이며 1980년대의 官撰史料에 근거한 정사극의 제작 환경의 변화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방송전문 의상 디자이너를 처음으로 공채하였고 고중을 바탕으로 제작된 의상, 장신구, 생활용품 등의 조선왕조 500년 복식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고중에 의한 정확한 재현 여부와 교육적 측면에서의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또한 초기의 사극 제작이 스튜디오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풍부한 컬러감을 줄 수 있는 민속촌이나 고궁 등의 야외 촬영지로 확대되었으며 화려해진 컬러 의상으로 드라마가 영상예술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컬러방송의 시작과 더불어 철저한 고중과 탈 스튜디오 제작으로 사극의 리얼리티를 높이고자하였으며, 방송전문 의상 디자이너의 공채, 조선왕조 500년 복식전 개최 등 사극 의상은 디자인 변화기를 맞으면서 철저한 고중에 의한 의상제작으로 교육적 기능의 역사적 재현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독자적인 방송 미술분야로서의 확대된 가치(1992년 ~1999년)

1990년대는 사극의 정체가었지만 프로그램의 대형화 및 고급화에 따라 드라마에서 의상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외부 미술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방송 미술분야가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판

단하여 MBC에서 분리시켜 MBC 미술센터를 창립하여 영상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사극 의상의 독립적 발전기를 갖게 되었다. 고중의 중요성을 인식한 MBC 방송사에서는 의상, 제도예절, 고건축, 색채의 네 분야에 걸쳐서 학계의 전문 교수를 프로그램이 발생 될 때 수시로 전문 고중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도움을 받고(봉현숙, 2000) 방송사의 제작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종전의 사극에 비해 비교적 표현이 우수하고 고중에 충실했던 작품인 <대왕의 길>이 제작되었다. 이로써 미술 및 영상예술로서의 의상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의상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의상을 포함한 미술분야는 독자적인 방송영역으로서 확대된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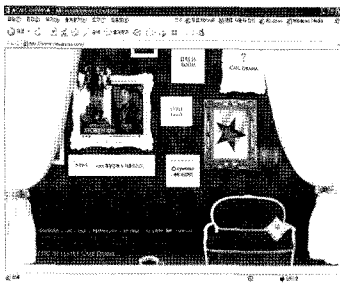
4) 문화콘텐츠로서의 상업적 가치(2000년~현재)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극 의상은 다면적 변화기의 모습을 나타내며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었다. 오픈세트 건축과 대대적인 의상협찬을 받은 <허준>을 계기로 영상을 통한 사실적 공간의 재현은 역사성과 극적 현실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사극 의상의 이미지와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져 사극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호진(2004)이 현대적 사극 발전의 사회적 요인으로 꼽았던 디지털 시대 개막과 함께 출현한 영상세대의 적극적인 드라마 생산, 정치사나 승자 중심이 아닌 생활사나 서민영웅 중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역사인식의 변화는 <허준>에서부터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연출, 작가, 미술, 의상 분야에서의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상과 생활에의 관심은 의상분야에서 세부적인 측면까지 디자인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7월에는 본격적인 HD(High Definition, 고화질 디지털) TV 시대가 열리면서 편당 2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사전 제작제로 제작된 조선여형사 <다모><그림 15> 등 대형화된 사극 제작에 적극 활용되어 뛰어난 영상미학과 작품 완성도를 보여줌으로써 관람행위의 주체자인 시청자에게 높은 만족을 주었다(강호진, 2004). HD 프로그램은 제작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까지 담아내는 정도의 선명도와 와이드 화면으로 인해 제작기법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트, 의상, 분장, 소도구 같은 미술파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고화질 시대의 방송, 방송미술”, 2005).



<그림 15> 다모



<그림 16> MBC 미술센터 '카페 드라마' 인터넷 홈페이지



<그림 17> 대장금



<그림 18> '이산' 성송연의 다모복과 왕세손의 평상복

또한 '손안의 TV'로 불리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방송은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다양한 형태의 수신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TV傳', 2005). 이와 같은 HD 영상과 DMB 방송의 실현은 영상미학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과거의 단조로운 화면구성일 때보다 세टना 소품, 의상 하나를 제작하면서도 이제는 유비쿼터스의 기술기반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이 개입된 미술품들을 제작하기 위한 방향으로 새로운 노력과 연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작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상 디자인의 다면적 변화는 극 이미지의 극대화에 기여를 한 사극 의상이 문화콘텐츠로서 상업적 가치를 생산하게 되었다. MBC 미술센터는 2007년 7월 10일 외부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주몽>, <대장금>, <다모>, <궁> 등에서 사용된 사극 의상을 갖춰놓고 사진촬영을 원하는 일반 고객에게 의상을 착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카페 드라마(Cafe Drama)'를 오픈하였다. <그림 16>은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는 '카페 드라마'의 홈페이지로서, '카페 드라마'는 2008년 현재 MBC 미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가운데 하나로 상표등록이 되어있다.

<대장금>은 2004년 3월 23일 종영한 이후 4월에만 최대 케이블 방송사 GTV에 해외판매, MBC의 자회사인 iMBC를 통한 유료 인터넷 VOD 서비스, TV 뮤지컬로 제작된 <대장금> 의상 6벌의 디자인 의상등록 등 콘텐츠 One Source Multi-use를 통해 종영 이후에도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한류열풍까지 가세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그림 17). 이후 <이산>의 성송연의 다모복, 왕세손의 평상복은 의상등록 되었으며, 사극 의상이 갖

는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그림 18).

<허준>, <대장금> 등에 의상 및 전통장신구를 제작·협찬했던 정훈닷컴은 전통복식과 장신구에 대한 고증과 제작·출판 작업을 해나가면서, 미주 한인학교나 재외공관에 한복 대여, 프랑스 파리 한복박물관 건립 준비위원 등 한복관련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한복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NHK, 朝日新聞이 공동 주최한 KOREA SUPER EXPO 2002 행사의 '한국의 복식사' 부문에 MBC 미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사극 의상을 임대 전시했다. 이 행사는 일본 동경에 위치한 치바마쿠하리멧세 7, 8호관에서 6월 19일~23일 동안 열렸다(문화방송, 2003). 또한 2006년 5월 2일~5월 14일까지, MBC 미술센터, 일본 NHK 엔터프라이즈, NHK 프로모션이 공동으로 진행한 '장금의 맹세' 전담회에는 대장금의 수랏간, 의상(수랏간 나인, 궁중), 궁중혜어, 음식 등의 테마로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개최되었다. 이렇듯 사극의 인기를 통해 한복에 대한 가치가 재발견되고 그러한 가치가 상업적 가치를 갖는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면서 사극 의상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MBC 개국 이후 현재까지 사극 의상 관련 제작환경 및 사극 의상의 전반적인 특징에 따른 변화와 사극 의상이 갖는 가치를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MBC에서 방영된 사극을 중심으로 TV 사극 변천과정 속에서 사극 의상의 제작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사극 의상의 변화에 나타난 특징과 가치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9년부터 1980년까지는 사극 의상 제작의 태동

<표 3> TV 사극 의상 제작환경에 따른 사극 의상의 특징 및 가치분석

| 시대구분 | 사극 의상 제작환경 | 대표 사극 | 사극 의상의 전반적 특징 | 사극 의상의 가치 |
|------------------------------|---|--|---|----------------------------------|
| 사극 의상의 태동기 | 사극 의상 차용기 (1969년) | 회심곡(1969) | - 조선시대 위주의 의상 - 조선시대 궁중과 사가의 의상 - 장신구의 신분 및 계급별 제작 - 고중에 의한 의상 디자인 시작 | 사극의 역사 재현의 시대적 배경물로서의 가치 |
| | 사극 의상 제작 도입기 (1970년~1973년) | 장희빈(1971) 대원군(1972) | | |
| | 고중에 의한 사극 의상 제작기 (1974년~1980년) | 타국(1977) | | |
| 사극 의상의 디자인 변화기 (1981년~1991년) | - 컬러 TV 방송 시작 - 탈 스튜디오 제작 시작 - 의상 담당 디자이너 첫 공채 - 조선왕조 500년 복식전 개최 | 조선왕조500년 (1983-90) 동의보감 (1991) | - 철저한 고증과 화려해진 의상의 영상미를 추구 - 컬러감 위주의 의상 디자인 - 역사적 재현의 강조에 따른 - 역사재현의 강조에 따른 의상의 세밀함·정확함·화려함 | 철저한 고증에 의한 교육적 기능의 역사적 재현물로서의 가치 |
| 사극 의상의 독립적 발전기 (1992년~1999년) | - MBC 미술센터 창립 - 의상 협찬의 시작 - IMF에 따른 제작환경의 위축 | 대왕의 길 (1998) | - 미술 및 영상예술로서의 의상의 전문성 강조 | 독자적인 방송미술분야로서의 확대된 가치 |
| 사극 의상의 다면적 변화기 (2000년~현재) | - 영상세대의 적극적인 사극 제작 - 대규모 야외세트 설립 - 사극 제작 협찬의 확대 - 디지털 제작환경 및 유통구조의 확대 - '카페 드라마' 오픈 | 허준(2000) 대장금(2003) 다모(2003) 주몽(2006) 태왕사신기(2007) 이산(2008) | - 역사적 공간 재현의 극적 현실성, 디지털 환경 등에 따른 사극 의상의 완성도 요구 - '탈 조선', '탈 궁정' 등 시대배경과 인물의 다양화에 따른 의상 표현의 다양성, 디자인의 다양화 증가 - 창작 의상으로서의 인식 기반 구축 - 한복 디자인의 적극적인 현대화 | 확대 재생산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상업적 가치 |

기로 영화 미술업체로부터 사극 의상, 가발, 장신구 등을 차용해오다가 방송사 미술자산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대적 고증이 가능한 조선시대 의상부터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고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극 의상은 열악한 제작환경 및 반복적인 재사용이 가능한 흑백 TV 시대였기 때문에, 사극의 시대를 나타내는 역사 재현의 배경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1981년부터 1991년까지는 사극 의상의 디자인 변화기로 컬러 TV 방송 시작, 탈 스튜디오 제작, 의상 담당 디자이너 첫 공채, 조선왕조 500년 복식전이 개최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극 의상은 철저한 고증과 화려해진 의상의 영상미를 추구하며 컬러감 위주의 의상 디자인과 역사 재현의 강조에 따른 의상의 세밀함이 중요해졌기에 철저한 고증의 교육적 기능의 역사적 재현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는 사극 의상의 독립적 발전기로 MBC에서 MBC 미술센터가 분리되어 창립되

고, 사극 의상은 미술 및 영상예술로서 의상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독자적인 방송미술분야로 확대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사극 의상의 다면적 변화기로 영상세대의 적극적인 사극 제작으로 대규모 야외세트 설립과 사극 제작협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디지털 제작환경 및 유통구조의 확대와 상업적인 카페 드라마가 시작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의상은 디지털 환경의 요구에 따라 역사적 공간 재현의 극적 현실성 강조와 투자에 발맞추어 사극 의상의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조선을 벗어난 다양한 시대배경, 궁전과 양반을 벗어난 인물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요구되어 디자인 표현의 다양성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극 의상이 창작 의상으로서 인식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한복 디자인의 적극적인 현대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극 의상은 사극의 인기와 함께 극 이미지에 기여함으로써 유통환경의 확대에 따라 방송 종영 후에도 문화콘텐츠로서 상업적 가치를 생산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극 및 사극 의상이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및 제작환경 등 방송환경의 외적, 내적 요인에 따라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사극 의상은 역사 재현의 시대적 배경물에서 상업적 가치를 지닌 확대 재생산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밝혀냈기에 사극 의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산학 연계의 고증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길 바란다. 본 연구는 사극 의상의 질적 변화 및 개별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에 앞서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한 개의 방송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점과,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접근 가능한 범위의 차이로 인해 시기별 분석내용의 형평이 다소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방송 3사 전체의 사극 의상을 대상으로 한 통시적 접근, 사극 의상에서 보여지는 구체적인 의상 스타일의 질적 분석, 사극 의상이 상업적·문화적 가치를 갖는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경로의 분석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호진. (2004).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의 영상스타일 연구: MBC <동의보감>과 <허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욱. (1982). *歷史劇의 考證: 복식, 예법, 언어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2('82. 10), 149-156.
- 김준호. (2006). *역사 드라마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텍스트 외적 조건에 관한 연구: <대장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화방송. (1986). *文化放送 年誌 1986*. 서울: 문화방송.
- 문화방송. (1998). *文化放送 年鑑 1998*. 서울: 문화방송.
- 문화방송. (1999). *文化放送 年鑑 1999 (통권 16권)*. 서울: 문화방송.
- 문화방송. (2001). *文化放送 年鑑 2001 (통권 18권)*. 서울: 문화방송.
- 문화방송. (2002). *文化放送 年鑑 2002 (통권 19권)*. 서울: 문화방송.
- 문화방송. (2003). *文化放送 年鑑 2003 (통권 20권)*. 서울: 문화방송.
- 화방송.
- 문화방송경향신문 TV 제작국. (1979). *TV 드라마 편람*. 서울: 문화방송경향신문 TV제작국.
- 문화방송 TV제작국. (1992). *TV 드라마 편람 (제6집)*. 서울: 문화방송 TV제작국.
- 봉현숙. (2000). *TV 사극 드라마 의상의 고증에 관한 연구: '대왕의 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봉승. (1984). *歷史와 歷史劇에 대한 認識*. 방송연구, 8('84. 3), 166-174.
- 의상스태프 24시. *고치 속에 숨어있는 날개 꺼내기*. (2005, 11. 12). *MBC 미술센터 소식지 美·工·所*, pp. 12-15.
- 이병훈. (1997). *TV 史劇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종. (1982). *바른 역사인식*. 방송연구, 2('82. 10), 131-139.
- 이현희. (1982). *역사극의 사실 고증과 문제점*. 방송연구, 2('82. 10), 140-148.
- 이호준. (2006). *지상파 TV 3사 드라마 편성 현황 분석*. 방송위원회 TV 드라마의 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울.
- 전현진. (2005). *TV 드라마에 나타나는 시청자 분극화 현상에 대한 연구: 2000년 이후 고시청률 드라마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효순, 원혜은. (2004). *사극 드라마 의상제작에 관한 연구: '계국의 아침'과 '무인시대'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7(3), 99-111.
- 주창윤. (2004). *역사 드라마의 역사 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48(1), 166-188.
- 주혜정. (2002). *TV 사극 장르를 둘러싼 제작자, 텍스트, 수용자간의 역학: KBS <태조왕건>과 MBC <허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울. (2007). *영상물 제작을 위한 고증 의상 디자인 연구: 13-14세기의 고려양과 몽골풍의 귀부녀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57(1), 176-186.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편). (2006). *동아시아 드라마제작 환경과 비즈니스 연구: 일본*. 서울: 방송위원회.
- 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 (1992). *文化放送 30年史*. 서울: 문화방송.
- Special Theme 1. TV傳. (2005, 5. 6). *MBC 미술센터 소식지 美·工·所*, pp. 3-7.
- Special Theme 2. 고화질 시대의 방송, 방송미술. (2005, 5. 6). *MBC 미술센터 소식지 美·工·所*, pp. 8-9.
- Russell, D. A. (1985). *Stage costume design: Theory, technique, and style*. N.Y.: Prentice-Hall.